

Newsletter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 ㈜인투인월드입니다.

㈜인투인월드는 환자와 연구자, 스폰서 간의 신뢰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의료 혁신의 가치를 안전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2015년에 설립된 임상시험수탁기관(CRO)으로, 사람 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연구자 주도 임상(IIT), 관찰연구(OS) 등 다양한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수출 45억 달러'역대 최대... K-바이오 글로벌 질주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은 2026년 상반기 4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며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특히 CDMO 공급 확대와 바이오시밀러 수요 증가가 주요 성장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시장에서의 수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정부 또한 규제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가 기대된다.

'AI 신약개발 추적, 특허 숫자만으론 부족... 전주기 생태계' 필요

국내 AI 신약개발은 특허 출원 증가와 후보물질 발굴 중심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초기 단계에 집중되고 임상시험, 약물감시 등 후기 개발 영역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후보물질 발굴을 넘어 임상·규제·데이터·사업화를 연결하는 전주기 생태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미국 약가정책에 글로벌 공급 흔들... 국내 신약지형 위기감

미국의 MFN 약가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미국 시장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시장에서 신약 출시를 유예하거나 철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약가 유연계약제를 도입했지만, 정보 비대칭과 행정적 한계로 임상현장의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결국 글로벌 약가 연동 구조 속에서 환자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Newsletter



'초음파도 AI 전쟁...

글로벌 기업들 워크플로우 향상 총력전

글로벌 초음파 시장 경쟁은 화질 중심에서 AI 기반 워크플로우 개선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주요 기업들은 자동 촬영, 계측, 분석 기능을 통해 검사 시간 단축과 숙련도 격차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의료진 부족 문제와 맞물려 병원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향후 초음파 시장의 경쟁력은 진단 정확도보다 사용 편의성과 생산성 개선에 달려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AI 신규 코드 열린 미국... 국내 인공지능 기업들 기회될까

미국 CMS의 AI 기반 흉부 CT 분석 행위에 대한 신규 수가 코드(G0680) 신설로 의료 AI가 제도권 의료행위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시장 경쟁은 단순 정확도에서 워크플로우 연동과 기회적 분석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도 '제로 클릭' 환경 등 운영형 플랫폼 구축을 통해 미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AI 만성질환 관리 이끌 7개 핵심사업 착수... 건강관리 목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AI 기반 만성질환 관리 혁신을 위해 7개 핵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건강행동 변화, 일차의료 개선, EMR·PACS 연계, 원격 협진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며, 총 90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며, AI 기반 의료서비스 상용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